

3월22일(월)/사도행전 14:19~28 (2)

**제목: 새신자는 끝까지 책임져야 합니다.**

루스드라에서 둘에 맞아 죽을 뻔하였던 바울은 더베로 갔다 (19~20절). 그들의 제1차 전도여행의 마지막 지역은 더베였다. 더베에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결신자를 얻은 뒤에 바울과 바나바는 다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을 지나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다시 사람들을 권면하고 가르침을 전했다(21~23절). 그리고 비시디아를 거쳐 밤빌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잇달리아로 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본 교회인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그 동안의 선교 보고를 하였다(24~27절). 이렇게 해서 제1차 전도 여행은 마무리 되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더베에서 다소라는 곳까지 가서 거기서 배를 타면 본 교회가 있는 수리아 안디옥까지 쉽게 갈 수 있었다. 만일 이 경로를 취했다면 보다 빠르고 보다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그러나 이 경로를 취하지 않고 자기들을 박해하였던 곳을 다시 차례로 방문하며 더 멀고 험악한 길을 택했다. 왜 이런 길을 택했는가? 자기들이 선포했던 진리를 더 깊게 더 온전하게 가르쳐 주고자하는 열망과 이방적인 분위기를 속에서 고립될 수 있는 새신자들을 더 온전히 세우기 위함이었다. 우리도 우리가 인도한 새신자들을 이렇게 끝까지 돌보아야 한다.

3월23일(화)/사도행전 15:1-5

**제목: 교리를 부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예루살렘에서 온 율법주의적 성향이 강한 기독교인이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1절). 이들과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 이 양자 사이에 신실한 신자들이 중재에 나섰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몇몇 성도들을 안디옥 교회의 공식 대표로 예루살렘 총회에 파송하기로 하였다(2절).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그 와중에 베니게와 사마리아를 거치며 그곳 교인들에게도 이방 선교에 대한 보고를 함으로 함께 기쁨을 나누는 일을 하였다(3절).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과 바나바는 그동안 많은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보고를 하였다. 그러나 그곳에도 여전히 바울과 바나바에게 문제를 제기하는 자들도 있었다(5절)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들이 믿고 구원받은 것을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이다” (4절)라고 하였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든 교리는 하나님께 반기를 드는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기독교의 교리를 부정하는 것은 하나님께 반기를 드는 것이다. 기독교의 중요한 신념 체계를 부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독교 주변의 이단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들이다.

3월24일(수)/사도행전 15:6-11

**제목: 교회의식을 신앙으로 착각하는 자들**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여 격렬한 논쟁이 있던 후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었던 베드로가 일어나서 결론을 내리는데 결정적인 말을 하였다(6~7절).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님을 허락하셨으며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별을 두지 않고 믿는 자는 누구나 깨끗하였으며 그것을 거절하는 할례파 기독교인들의 태도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경고하였다(7~10절). 그는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이 율법을 지킨다고 자랑하였으나 실상 그것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면서 이방인에 지우려 한다고 꼬집기도 하였다(10절).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는 만민이 평등하게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결론적으로 말했다(11절). 본래 유대인은 할례의 본래의 목적을 상실한 채 할례 자체가 자신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선물로 착각하였다. 이것은 의식주의가 언제나 빠질 수 있는 위험이다. 우리는 의식이나 관례를 본질적인 영적 생명의 자리에 놓음으로 의식을 기독교와 결합시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준다. 오늘날 크리스찬들도 교회의 의식이나 관례를 너무 중시하여 그것에 충실한 것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된다.

3월25일(목)/사도행전 15:12~21

**제목: 구원받았지만 순결해야 합니다.**

예루살렘 총회에서 마지막으로 말한 사람은 야고보였다(13절). 그는 시므온과 선지자들의 예언을 인용하여서 이방인 구원의 문제의 정당성을 역설하였다(14절). 선지자는 이방인들도 이스라엘의 승리와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에 동참할 것을 예언하였다(16~17절). 야고보는 그렇게 예언을 인용한 후에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하였다(19절). 그러나 이방인들을 교회가 그렇게 받아드린다고 해도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꼭 지켜야 할 규칙을 제시했다. 그것은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해야 한다고 하였다(20절). 야고보가 언급한 조항들은 비록 그것 자체로서는 불법적인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의 요지는 순결이었다. 이것은 인간 본성상의 문제 있어서 성결된 분리를 의미한다. 크리스찬들은 순결해야 한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 이후의 삶을 마음대로 살아가도 된다고 생각하면 안된다. 그러나 오늘날 크리스찬 중에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진리를 오용해서 죄짓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자들이 있다. 구원받은 자는 인간 본성에 관계된 일에 대해서 항상 순결해야 한다.

3월26일(금)/사도행전 15:22~29

**제목: 교회의 결정은 성령님이 하십니다.**

예루살렘 총회는 이제 결론에 도달하였다. 야고보의 결론적 말이 예루살렘 총회의 의결로 공식 채택되었다. 이제 이방인 기독교인에 대해서 그 누구도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드리는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내려진 의결 내용을 편지에 담았다. 그리고 이 편지는 유다와 실라에 주어졌고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갔다(22~26절). 만약 바울과 바나바가 혼자 돌아갔으면 또 반대파들이 그 결론을 또 부정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유다와 실라는 보증인 자격으로 함께 보냈던 것이다. “성령과 우리는 ... 옳은 줄 알았나니” (28절)라는 말은 야고보의 말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는 뜻이다. 예루살렘 총회는 이렇게 은혜롭게 모든 것이 마무리되었다. 우리는 예루살렘 총회의 모습을 잘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오늘날 교회는 그들처럼 말하지 못하는 것 같다. 교회의 공식 회의에서 내린 결정에 대해서 끝까지 반대하고 방해는 사람이 간혹 있다. 교회의 결정은 ‘성령님’ (28절)께서 함께 내린 결정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한마음으로, 현명한 방법으로 그 결정을 시행해야 한다.



## 직장 · 가정 예배 모범문



작성자 : 박유신 목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산제일교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2동 647-2(중앙동 7단지 뒤)  
Tel.(031)485-0955~7 Fax.(031)401-2370